

##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인칭기

① 우리도 대학가고 싶어요

# 광주·전남 다문화 2세 1만명 시대

“저는 왜 대학 진학이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갈 수 있는 학교는 대안학교가 전부인데, 학력을 인정 안 해주면 어디서 대안을 찾아야 할까요?”

타이완(臺灣)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타이완에서 살아온 쑹징리(曾敬黎·19)양은 3개월 전 한국에 건너왔다. 쑹양은 어머니 나라인 한국에서 살기로 하고 우선 다니기에 적당한 학교부터 찾았다.

중국어는 물론 한국어도 익숙하게 구사하지만 쑹양은 입시 위주인 한국 일반 고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안학교가 전부였다.

개교 3년째로 국내 최대규모 대안학교인 광주 새날학교(교장 이천영·광주시 광산구 삼동동)에 재학 중인 그녀는 2개국어에 능숙히 구사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대학의 관광통역과에 들어가는 게 목표.

## 열심히 노력해도 학교수업 버거워 초등학교부터 배려 저학력 넘어야

그러나 현행 한국 법률로 정식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 학생인 그녀에게 대학 입학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검정고시를 치러 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한국생활 3개월째인 쑹양에게 검정고시 통과는 또 하나의 높다란 장벽일 뿐이다.

새날학교는 내년 2월 처음으로 5명의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을 배출한다.

그러나 미인가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식학력 인정이 안돼 졸업 예정 학생들의 진로는 불투명하다. 대학 입학을 손꼽아 기다리던 5명의 졸업과정 이주 자녀들은 유급까지 고려하며 공립학교 인가가 날 시 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은 새날학교의 정식학

력인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새날학교 교사와 재학생들은 정식학력이 인정된다는 소식에 기쁨까지 겹치며 큰 기대감에 부풀었다.

최근 교육당국이 공립 대안학교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학생들은 큰 상실에 잠겼다. 졸업을 앞뒀던 학생 중 10명이 곧바로 학교를 그만뒀다. 나머지 학생들은 불안한 진로에 대해 여전히 고민중이다.

일본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5개월 전 한국을 찾은 김민정(16)양은 한국말이 익숙치 않아 새날학교에서 중등과정을 이수중이다.

졸업은 멀었지만 쑹양 앞에 닥친 현실이 3년 후에도 이어질까 두렵기만 하다. 김양 역시 새날학교에서

고등과정을 이수한다 해도 정식졸업장은 초등학교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새날학교는 정식으로 교직을 이수한 교사 15명에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통역 교사까지 있다. 입학 후 초기에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후 한국어의 여느 고등학교와 크게 차이 없는 학사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가 달라 정상 학사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정식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의 높은 '벽'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푸른 꿈을 가로막고 있다.

김영경(49) 새날학교 교장은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에 누가 몇 년새 이주 자녀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었나. 기존의 법과 규정을 따지지 말고 이들을 보듬고 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빨리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로 지하에 갇혀 있다 매몰 69일 만인 13일(이하 현지시각) 광부 33명 중 두번째로 구출된 마리오 세플레데(왼쪽)가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과 감격의 포옹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칠레의 기적...매몰광부들 69일만에 생환

칠레 광부들은 절망과 사투를 벌여온 칠레 광부들이 지하에 매몰된 지 69일 만인 13일(이하 현지시각) 세계가 마을 졸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과 극적으로 재회했다. <관련기사 5·6면>

칠레 당국은 전날 밤 11시20분께 구조대원을 태운 캡슐을 광부들이 갇혀있는 산호세 광산 경도로 내려보내 는 것으로 매몰광부 33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착수, 약 50만만 인 13일 0시11분께 첫 구출 대상자인 플로렌시오 아발로스(31)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아발로스 구조에 성공한 당국은 다시 캡슐을 지하로 내려보내 약 1시간 간격으로 마리오 세플레데 에스피나(40)와 후안 안드레스 이야네(52), 볼리비아 국적의 카를로스 마마니

(23), 최연소자인 지미 산체스(19) 등 4명을 추가로 구출했다.

가장 먼저 구출된 아발로스는 경도에서 지상까지 약 16분간 캡슐을 타고 올라온 뒤 두달여의 지하 생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캡슐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아발로스는 그를 향해 달려든 아내와 아이, 일가 친척과 감격의 포옹을 나누는 후 구조대원과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을 차례로 일싸안았다.

현장에서 생환 광부들을 맞은 피네라 대통령은 “칠레 국민은 구조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 오늘 밤은 칠레 국민과 전 세계가 영원히 잊지 못할 멋진 밤이다”라며 기쁨을 나타냈다. 또 현장에서 구조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발로스가 탄 캡슐이 지상으로 나오자 “치! 치! 치! 레! 레! 레!” 등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다.

/연합뉴스

##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2010년 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시: 2010. 10. 17(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병 용

## 광주도시공사 재정 심상찮다

신규사업·분양 저조...2006년 이후 부채 4000억으로 급증

광주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지난 2006년 이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초 예상과는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 역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평동산업단지 조성 당시 1100억원, 2007년 나주혁신도시 조성 당시 2420억원 그리고 2008년 콜센터 건립 당시 300억원 등의 회사채를 발행,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부채가 4120억원에 이르렀다.

또 3047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진곡산업단지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당분간 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평동산단과 혁신도시의 경우 분양이 끝나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부채율도 257%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신규 수익이 가능한 사업장이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과거 택지가 발이나 아파트단지 조성 같은 사업이 없었지 민간이 하지 않는 사업만을 할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일부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거대한 공기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도시공사의 최근 사업들도 수익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도시공사가 531억원을 투자한 빛고을컨트리클럽의 경우 1년 동안 수익이 12억 4360만원에 그쳤다. 클럽의 수익 중 20억원을 빛고을노인복지타운에 지원해야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인복지타운은 물론 광주시까지 부담을 안게 됐다.

652억원을 투자해 서구 삼부지구에 들어설 콜센터 전용건물도 장기 임대방식이어서 길게는 30년이 지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림

##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9탄

심혜련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디지털 매체 예술'

※ 선착순 100명·무료

15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www.hpdynastycc.co.kr

##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다이너스티CC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시계절 푸른 양잔디, 한쪽의 수채화 같은 함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320-7700·7777

